| 불자 세상보기 |

벌레의 시대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혐오 신조어 벌레 '충(蟲)'
익명의 SNS가 등장 무대
한국사회 병리 대표사례

계층 · 집단 매도로 변질
자극화되는 타자 혐오는
도덕적 가치관 붕괴 상징

도덕과 사회정의 수립이
정화의 유일한 길일 터

벌레는 참으로 억울할 것이다. 벌레는 작고 기어 다니는 동물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벌레의 한문 발음 충(蟲)이 접미어로 사용되어 상대방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맘충, 급식충, 한남충, 노인충 등 사람을 벌레로 만들어 비하하고 있다. 한때 된장녀, 김치녀 등 우리가 자랑하는 전통음식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 여성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어느 정치가는 바퀴벌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비난하기도 한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벌레는 환장할 노릇이다.

인간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벌레의 주류인 곤충을 대량 사육하여 살 처분까지 한다고 하니 이름 더럽히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기억난다. 우리 엄마들이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밥충'이라고 야단치는 것을 . 그러나 이 밥충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움의 용어이지 결코 '급식충'이 아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은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의 사바세계에서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충(蟲)이란 접미어에 요란을 떠는 것인가? 충의 횡행 현상은 우리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땅위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충(蟲)의 등장 무대는 SNS이다. 이곳은 익명의 공간이다. 익명의 공간은 나를 감추고 남을 공격하기 좋은 장소다. 또한 이 공간은 집단을 만들기 쉽다. 따라서 싫은 대상이나 집단에 '떼공격'을 하기 쉽다. 이러한 익명의 집단 속에서 개인이 지닌 체면과 도덕성은 무디어 가고 그래서 편하기도 하다. 바로 인터넷 공간이 오염된 지하수를 여과없이 분출시키게 만든 것이다.

충(蟲)이란 접미어의 첫 등장 배경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음식점,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애들을 데리고 나온 일부 젊은 엄마들의 철없는 행동(개념 없는 행동이라 표현된다), 지하철 등에서 보는 일부 노인들의 추태는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개인에 대한 미움을 일반화하여 한 계층이나 잡단을 매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타자를 혐오하는 용어는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진화된다.

혐오의 자극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계속 용어는 험악해진다. 그래야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황폐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한국사회의 제일 큰 병리적 현상은 '정신적 가치의 물화(物化)' 현상과 '공동체 의식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배금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현세적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공동체의식이 균열되고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집단이기주의는 횡행하고 있다.

혐오의 시대를 벗어나는 근원적인 길은 우리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를 맑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분출될 때 이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구조의 정의성에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찍이 붓다께서는 연기법의 지혜와 자비의 두 수레바퀴로 큰 마차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어인 일인가.

이 마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가?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마(Gregor Sama)처럼 우리 모두가 벌레가 된 것 같으니 이를 어쩌랴.

社說

불교 사회참여, 제반환경 조성 시급

종교는 삶의 한 축을 이루는 요소로, 종교계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사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불교는 자리이타를 말하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이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에 불자들의 참여가 몰리고 있다. 자살예방이나 청소년 보호, 또는 미혼모 생계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불교계 기관 교육과정 정원이 두배 넘게 초과해 분반하거나 2차 강좌를 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진행되는 강좌로 무료 진행이 한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현장 전문가들은 또 다른 원인으로 불자들의 사회참여 욕구 확산을 들고 있다. 사실 불교계는 이웃종교계 만큼 신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단순히 포교 목적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해당 종교의 공공성을 일반사회에 알린다 것에 착안해 꾸준히 사회참여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찰 외 교육관이 필요하고, 공공사업 선정을 위해 수년간 자체 사업 진행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기본적인 필수조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찰 등 불교계의 지원이다.

최근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확산, 청소년 폭력 증가,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부처님은 재세시 세상의 고통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제는 남은 불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야 할 것이다.

간화선 세계화의 신호탄 올리자

수좌 스님들이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대작 불사에 나섰다. 바로 '문경세계명상마을' 불사 청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봉암사문경세계명상마을추진위원회가 6월 28일 개최한 국제건축설계공모작 발표현장에서는 간화선 세계화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미국 토마스 한라한 교수가 설계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물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와 외국인들이 편하게 좌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여기에서 진행될 다양한 선 명상 프로그램은 한류 관광콘텐츠의 새 바람이자, 인류 정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사와 함께 인재불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간화선 세계화의 문제점은 간화선을 전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불교를 펼칠 간화선 종장, 수행지도자들이 태부족하다는데 있다. 위빠사나 지도자들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티베트 린포체들이 법회를 여는 만큼, 간화선 종장들도 해외에서 활발히 간화선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수좌 스님이 외국인들이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도한다면 간화선 세계화도 먼 꿈 만은 아닐 것이다.

간화선 세계화는 한국에서의 대중화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에 세계화와 함께 간화선 대중화도 자연스럽게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옛날 인도인에게서부터 지금의 한국인들에게까지 보편타당하게 적용돼 왔다. 세계인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화선의 발전을 문경세계명상마을 청사진 공개와 함께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대학 강단서 혐오 발언이라니

학술대회 참여를 위해 오랜만에 동국대에 올라갔다. 학기 말이라 학업에 여념이 없을 학생들 사이로 오랜만에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세 장의 대자보를 발견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틈'이 붙인 대자보로 내용은 대학 강의 중 이뤄진 여성 · 성소수자 · 장애인 · 인종 등에 대한 혐오 발언 사례들이었다.

여총이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혐오 발언은 29건(64%)로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9건(20%), 장애인 혐오 발언 2건(4%), 인종 혐오 발언 2건(4%)였다.

발언 수위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여자들이 다 취집(취직+시집)을 해서 GDP가 낮다" "여자가 제사도 지낼 줄 모르면 시집가서 어쩌려고" "철학은 남성의 학문이다. 철학과 남녀비율이 비슷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등은 명백한 여성 비하 및 혐오 발언이다. "철학이 남성 학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는 유전자적으로 돌연변이"부터 "게이 스럽다" "동성커플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지는 번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등 심각한 수위의 발언들이 상당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여총은 "젠더, 국적,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등을 근거로 특정 대상을 타자화 · 대상화해 혐오의 근거로 정당화하는 것은 강의실뿐만 아니라

동국대 女總 강의실 혐오 발언 대자보
대학 內 혐오 문화 자성의 계기 되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강의실이라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혐오 · 차별 발언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총의 문제 제기는 타당한 부분이 많다. 실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언어를 통해 혐오하고 차별한다. '맘충' '급식충' 등 누군가를 벌레로 대상화시켜면서 혐오하는 행위는 사회 문화로 정착되는 중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배려와 관용이 부족하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4 1월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와 타인에 대한 관용 · 외국인 비율 등으로 구성된 '관용사회지수'와 실업률 ·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 노령 고용률 · 도로사망률 · 건강지출비율 · 자살률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수' 순위는 31개국 중 31위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회를 바꾸는 것은 미래의 인재들이다. 미래 인재들은 현재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대학은 학문 연구의 장이자, 교육의 공간이다. 교수와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존재한다.

학점이라는 권력 아래서 묵묵히 강의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하거나 웃는다고 생각 안했으면 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